

[목회자 모임]
해방된 하나님

2019. 12. 27. 이현래 목사

하루가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우리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성탄 특별에 배를 하지 않았다. 어쩐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짹짹하기도 하여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25일 낮에 성탄 축하 집회를 했다. 40년 만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왜 그랬는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24일 저녁에는 모여서 행사를 했다. 금년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 금목사도 오셔서 하게 되었다.

사실은 내가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어려서는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중동까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서 아기 예수를 못 만났다. 그 뒤로도 예수님을 따라 다닌다고 따라다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았다. 그 속에서 좋은 의미나 교훈 같은 것도 찾기도 했는데, 딱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는 알면서도 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 관계였다. 다 아는데 아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 가깝고도 먼 당신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금년에는 확실히 만났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 성탄절은 우연하지 않고 아주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다. 40년 만에 처음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10:19,20)는 말씀이 있다.

그 위의 구절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히10:17,18) 이런 말이 새 언약에 나온다.

죄를 그냥 두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것이 히브리 사상이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은 대면할 수가 없다. 만나

면 죽는다는 이것이 기본적인 사상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과연 누가 그것이 찢어진 것을 봤는지 궁금하다. 제사장들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누가 그 찢어지는 것을 봤을까? 또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그런 소문을 퍼트렸을 리도 없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인데,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다녔겠는가? 아니면 저주라 해서 선포했겠는가?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해 놓았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3:22)고 했다. 그래서 추방을 했다는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그 말은 이 동산에서 같이 살까 하노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동산에서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이다. 왜 같이 못 사는가? 분명 그 사람은 같이 살면 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성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리 이름을 빛내자고 할 것이 아닌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의 후예들이 걸어간 길이 그 길이였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사람이 소원한 대로 원 없이 살았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오래 사는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큰 소망이다. 그래서 실컷 살았고, 원 없이 산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천사와 결합해서 네피림이 되었다. 천사와 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소원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해져야 된다. 사람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끼다. 천사와 같은 신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소원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가면 목사도 신끼가 좀 있어야 된다. 신끼가 없으면 사람이 잘 안 온다. 전부 신끼가 있는 곳으로 몰린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첫 번째 부딪친 문제가 그것이었다. 저 사람은 신끼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는데,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자에 없는 짓을 하고 다녔다. 삼각산을 다 돌아다녔다. 별 사람을 다 만나보기도 하였다. 어떻게 하면 신끼를 받을까를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은 안 되고 말았다. 이것도 줄 사람이 있고, 안 줄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어서 접었다. 싫어서 접은 것은 아니었다. 다른 곳에 가서 신끼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공연히 주눅이 들었다. C.C.C.에 갔을 때도 그 안에 있는 간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열심이 대단했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부러웠다. 그런데 그것 역시 안 되었다. 그래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충주 있을 때, 엑스포로 74를 준비하였다. 내가 그 지역 간사니까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사회를 하게 되었다. 충주, 제천, 중원, 단양지구를 합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였다. 내가 사회를 하면서 강사 소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라고 3,000명 앞에서 전혀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이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50만 성도, 여러분은 해보고 싶지 않은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싹 사라졌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구나. 저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것은 사람이구나.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신끼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아라는 그런 식이 되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팔자가 그러면 해야지 어찌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 뒤로 그런 종류가 아닌 또 다른 성령을 의지한다는 사람을 만났다. 말끝마다 '성령, 성령'한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서 내 영, 자기 영으로 들어왔다. 성령은 객관적이니까 내 영과 합해진 영, 밖에 있는 성령과 자기 영이 합해진 영, 그 영을 주장하니까 더 완벽하다.

성령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성령과 내 영이 합해졌으니까 그것이 내 영이다. 성경에도 그런 근거가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

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분명 그 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성령은 별로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있는 영, 성령과 합해진 내 영,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그날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그 영을 가지고 왔을 것이 아닌가? 기도했다면 안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도해서 오는 그런 영이 아니고 항상 자기 영과 합해진 영이니까 그 안에 그 영이 있다. 그 영이라고 말하는 영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영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다. 그 영을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신끼와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신끼와 인연은 그때 딱 끊어졌다. 밖에 있는 성령, 성령하는 사람들과도 끊어졌지만 이것은 자기 속에 그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이 뭔가 했는데 그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도 말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신끼, 영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나와 너무 멀다. 동방박사들이 왔느니, 별들이 어떻게 했느니, 그런 말이 동양에도 있다. 큰 사람이 나면 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큰 사람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는 말들도 있다. 그런 문제로 이해를 했지 그것이 나에게 실감난 것이 아니었다.

어려서는 성탄 축하 송을 하느라고 3.5km나 되는 곳을 새벽에 걸어갔다 오기도 하였다. 거기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셨다. 거기까지 새벽 송을 하러 다녔다. 재미있기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과는 다르다. 아이들은 그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했다. 나도 어려서 한 성탄절 축하예배니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 축하 예배를 따로 하지 않았다.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할 생각은 없고,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금년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고, 가까이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만난 그분을 말해도 되고, 그분으로 인한 축복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없다가 진짜 이제 성탄절이 생겼다. 물론 날짜가 맞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제면 어떤가? 상관이 없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 특이한 생각이 든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한다. 이것은 구약의 제례를 가지고 한 말이다. 옛날에 번제단에 드리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이야기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이 피가 없어서 들어갈 담력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어렵다기 보다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추방만 하고 만 것이 아니고, 혹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화염검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 천사들이 지켜서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철통같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는가? 얼마나 깨끗하면 거기에 들어가겠는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죄를 아무리 회개해 보았자 그렇다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제사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지 그 사람도 인간으로서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대략 추산해서 대략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도 모세 한 사람밖에 산꼭대기에 못 갔다. 캄캄했다고 했다. 캄캄하고 나팔소리가 나고 요란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죽을 것이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했다. 모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보고 듣고 온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에 나오겠는가? 그 시커먼 구름 속

에서 모세도 죽었다가 나왔는지도 모른다.

검은 구름이라는 것이 무섭다. 안 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제주도에서 서귀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516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시커먼 구름 덩어리가 날아왔다. 정말로 아무 것도 안 보였다. 10m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 빛이 안 보였다. 심지어 5미터 앞도 안 보였지 싶다.

얼마나 캄캄한지 내가 켜 놓아도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이 켜 놓아도 소용이 없다. 보통 우리가 밤에 캄캄하다는 것과 다르다. 아주 새카만 구름이 왔다. 아마 산 위에 있었던 구름이 그런 구름이었을 것이다. 뻑뻑한 구름이라고 했는데, 그런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만나겠는가? 만날 수가 없다.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만난다고 생각했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 천당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다. 죽으면 간다는 말도 알고 보면 맞는 말이다. 살아서는 못 가는 것이다. 살아서는 못 만나는 것이다. 궁중에 있던 여자들도 한 번 궁중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죽어야 나온다. 시체가 되면 뒷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있는 동산도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 죽어서만 들어간다. 그래서 죽어서 천당에 가면 만난다는 말이 틀림없이 맞기는 맞는 말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되겠는가? 얼마나 잘 해서 모세만큼 되겠는가? 모세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올라오라고 한 사람만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너 올라오라.'고 지명해야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헛일이다. 나도 해 봤는데 안 만나진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다 자기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면 거기서 못 빠져 나온다. 한 번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말을 안 한다. 아무리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나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너와 나는 끝났다고 했다. 귀신과 내가 무

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통할까 말까 하는데 신끼 있는 사람과 말을 하면 안 통한다. 말해보았자 헛일이다. 신끼와 나는 아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야 그런 끼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끼는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한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가? 그 정도이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 말만 그렇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허황한 소리를 하고 있다. 꿈에 만났느니, 환상으로 보았느니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허황하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속지 말라. 속은 것이다. 그것은 속은 것이다. 들어가겠는가?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겠는가? 화염검이 있는데 어디 들어가겠는가? 호랑이도 못 들어간다. 아예 그런 종교적인 환상은 버려야 될 것 같다.

종교적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간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종교마다 방법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저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입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다. 나도 입신하고 싶었다. 그래야 한 번 볼 것 같았다. 안 됐다. 방언도 안 되는데 입신이 되겠는가?

이것도 말은 이렇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다. 여러분 중에 한 번 들어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해보았자 헛말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까 이야기해서 들어보았자 헛일이다.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면 성소가 개방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개방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이 말은 결국 동산의 화염검이 걷어졌다는 말이다. 불이 취소되었다는 말이다. 그 불이 없으면 우리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휘장이 없으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

나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늘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되었다. 전에도 이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그런데 안 되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말은 좋고 기분은 좋은데, 그 길을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하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밖에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그냥 한 방이 되지 않았겠는가? 한 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쉬운데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어렵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해보면 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면 어렵다.

하나님이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캄캄한 데서 어떻게 독방 생활을 했는가 싶다.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라. 캄캄한데 빛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물론 비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조용하고 좋지만 사람이 조용하다고 해도 분수가 있지 새카만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어 보라. 죄수 가운데서 제일 골치 아픈 죄수는 캄캄한 방에 혼자 가두는 것이다.

빠빠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꾸 탈옥을 하니까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둬놓았다. 그리고 밥 줄 때만 구멍으로 주는 것이다.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비타민 D가 없어서 이빨이 빠진다. 오늘 하나 빠지고 내일 하나 빠지는 것을 영화로 묘사해 놓았다. 그 사람이 결국 탈옥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기어코 탈출할 길을 찾아서 도망친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깊은 만인데 그 앞에 섬이 하나 있다. 그 영화를 그 섬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거기에 식인 상어가 우글거렸다고 하니까 빠지면 죽는 것이다. 거기에 가둬놓고 너 혼자 살아라. 옥수수 씨를 줌 주고 너 혼자 경작해 먹고 살라고 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러면 살다가 죽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기어코 뗏목을 만들어서 불란서 령으로 도망쳐 나간다. 그때 보면 통쾌하다. 옥수수 대로 뗏목을 만들어서 물에 던져 놓으니까 물결을 따라서 불란서 령으로 간다. 그때 미소를 짓는 얼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 놓았다. 얼마나 통쾌했겠는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불란서 령으로 가겠다는 이 생각을 한 것이다.

독방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지금 박**도 독방신세다. 이년 반 정도를 독방 신

세를 하고 있다. 독방이니까 우선은 조용하고 좋겠지만 끄끄한데 혼자 나뉘 보라. 날마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이 그 허구한 세월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면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끄끄한 방에서 혼자 살았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외롭겠는가?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기를 바라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해방되었다.

예수는 여기서 하나님을 해방시킨 사람이다. 결국 우리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우리 때문에 벽을 가려놓고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 벽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사랑방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뭐를 써 놓았다.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좋다고 하니까 내가 답글을 써 놓았다.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옛날에는 그 애한테 찾아갈 수도 없다. 휠체어 타고 겨우 다니는데 그 애한테 어떻게 찾아오겠는가?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들을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해방된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자식에게 부모 찾아오라고 하면 안 찾아온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얼른 생각할 때,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와야 할 것 같은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찾아가야 한다. 부모는 찾아갈 수 있다. 부모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갈 수 있는데, 아들은 못 찾아간다. 틀어지면 못 찾아간다.

우리는 더 좋은 복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해방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대로 뭔가를 갖추어야 되었다. 그래야 여기에 들어간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간다고 하

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할 필요가 없다.

어제 저녁에 CTS에서 어느 교회 한 곳을 선정해서 성탄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았다. 성탄 예배 중계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하니까 요란했다. 옷도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따로 옷을 입고, 좌석도 다르고, 성가대도 물론 따로 그리고 부인회는 부인회대로 합주부도 옷을 따로 입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남자들이 전부 검은색 옷을 입고 넥타이를 다 메고 앉았다. 아마 천명은 되지 싶다.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앉았는데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다. 넥타이 입은 사람은 많이 보지만 열을 지어 앉아서 정렬되어 앉았는데 신기했다. 넥타이를 매고 그런 식으로 앉아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복장을 통일해서 큰 예배당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성탄 축하 예배를 했다.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캐스팅과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도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 이름이 나왔다. 마지막에 목사가 나와서 메시지 대신에 기도를 했다. 십자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강대상 뒤에 그림인지 실제 나무인지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나 같으면 영광을 받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지 안 받겠는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하는데 하나님인들 모른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한두 사람이 오면 나 너희들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체적으로 만 명인지 이만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찼다. 그렇게 정렬을 하고 정장을 하고 와서 앉아서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난 몰라 하겠는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면 못할 것 같다. 인정상으로도 안 될 것 같다. 놀랐다.

축하도 하나님도 꿈쩍 못하게 축하를 한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도록 축하를 해버렸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했다. 오래 살다보니 별난 세상을 다 본다 싶었다. 그것도 그렇게 기획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제는 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열려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쉬운가! 아들에게 '저놈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나.'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답답하면 아버지가 찾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찾아오면 제일 쉽다.

내가 언제 누구 집에서 그런 것을 봤다. 아들이 경주에서 학교 교장을 하는 분인 것 같다. 머리가 하얀데 아들이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학교 교장 아니면 교감이고, 또 아들 하나는 농사를 짓고 있다.

마침 추석에 고향을 갔다 오다가 거기를 들렀는데, 아들이 손자와 같이 와있었다. 손자가 한 삼십이 넘는 것 같았다. 아들을 놓고 일 년에 이렇게 한두 번 오면 되냐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그것을 손자가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그만 하세요. 아버지 그만 갑시다.’ 이런 꼴이 되었다.

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으면 바쁘는데 찾아 왔느냐, 고맙다고 했으면 다음에 또 올 텐데, 일 년에 한두 번 왔다 가면 되느냐고 마구 꾸지람을 하니까 다시는 못 오게 되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30년을 살다온 친구가 큰 아들이 미국 여자랑 결혼을 했다. 같이 못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 년에 한두 번 성탄절에 한번, 부활절에 한번, 전화 오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쁘는데 전화 했느냐,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고 칭찬을 해야 다음에 또 오지 안 그러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모는 열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지만 아들은 한번 그러면 안 온다. 자기 잘 먹고 잘사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욕 얻어먹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아예 안 와 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는 것이 쉽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쉽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불러 본 일이 없다. 와 달라고 해 본적이 없다. 그렇게 못한 것이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항상 내 앞서 가신 분이구나. 내 앞서 준비하신 분이구나. 내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더러가 아니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다. 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뭘 받아야 할지를 모른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

않다.

여기 이렇게 써 놓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지만 담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차별이 없다. 아버지는 어느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아들이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다.

담력이 있으면 가고 담력이 없어도 오신다는 말이다. 담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막아 놓았는가? 아무나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되는 것이므로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계시겠는가?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신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보니까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함께 가게 되어 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가시니까 같이 가는 것이다.

이제는 갈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분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활동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이 며칠 안 오면 궁금해진다. 왜 안 오는가 한다. 내가 활동할 수 있으면 찾아가겠다. 뭐 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가면 된다. 자기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이다. 손자들도 있으니까 보고 싶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간다. 그런데 아들들은 오라고 해야 온다.

하나님이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좋다. 하나님이 해방되었으니 자유로이 오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해방시켰다. 동산의 화염검을 걷어놓았다. 들어갈 수 있게만 된 것이 아니라 나오실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문을 열어 놓아도 못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간다.

온 인류가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간다.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갈 사람은 멸망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실 수만 있으면 오만에 다 갈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든 다 찾아갈 수 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오는 사람은 찾아가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다. 기도도 많이 못해보아도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늘 생각할 때, 내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금식 한 번도 못해보고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늘 있다. 그런데 금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C.C.C.에 처음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3일 금식이 되는가? 할 수 없이 하루를 금식하니까 속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C.C.C.에 잘린 것도 금식기도에 참여했더라면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겨울에 40일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전국에서 간사들을 다 모집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다가 예수원에 갔다가 했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이번에 금식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끝까지 같이 한다고 약속했다. 금식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일차 숙청 대상이다. 내가 그때 40일 금식기도에 참석했더라면 C.C.C. 사람이 될 뻔 했다. 못 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나올 용기도 없고, 또 나와도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내보내니까 나왔다. 내보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다. 바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쁘지 내가 바쁘겠는가?

요즘에 사람을 시켜보면 주인이 마음이 바쁘고, 속이 많이 상한다. 왜냐하면 아침 아홉시 되어야 온다. 담배 한 대 펴야 하고, 연장준비 해야 하고, 어영부영 한 시간이 지나서 열두시 땡 하면 밥 먹으러 가야 한다. 밥 먹으러 갔다 오면 두 시간이고, 그런 후 오후에 한 세 시간 일하는 것도 안 된다. 다섯 시 되면 여름에 해가 많이 남아도 땡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주인만 애가 타는 것이다. 일을 좀 더해야 하는데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고 일한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제일로 급한 분이다. 자기 일이면 자기가 제일 바쁘지 왜 우리가 바쁘겠는가?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줄 아는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고 했으니까 그래도 충성은 해야 한다. 내 말 듣고 안하면 안 되고, 그래도 충성은 해야 한다. 충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충성하신다는 말이다.

문이 열렸다.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문도 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나오고 싶어 하는 문이다. 우리는 안 들어가도 산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 자식들은 커버리면 부모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다.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안 되지만 시집장가 가고 나면 부모 있으면 귀찮다. 괜히 찾아봐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니까 귀찮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 반대다. 갈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이 더 보고 싶다. 이상한 이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휘장이 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 열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연 것이다.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그 휘장이 벗겨지기를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라. 캄캄한 휘장을 쳐놓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한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아주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지 잘 먹고 잘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점점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사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다보면 교회올 사람이 별로 없다. 교회를 오지 않아도 별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뭐 하러 교회 오겠는가?

옛날에는 감기만 들어도 무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돈 천원 이천 원만 가

지면 병원을 간다. 한국 의료보험보다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사람은 편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괴로워야 찾아가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괴롭게 만들겠는가?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을 가르친다. 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단 죄를 가르쳐놓는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죄를 잔뜩 퍼 부어서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주었다고 한다. 세상이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답답하시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깐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지 답답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왜 부르겠는가? 나는 오죽하면 나를 불렀겠나 생각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온다. 오죽하면 나를 불렀겠나 싶다.

새롭고도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도 산 길! 그것도 참 좋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해방시켜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아무것에도 메일 것이 없이 자기 찾아가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잘못된 놈은 죽이고, 잘한 놈은 살리고 이려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아들은 죽이고, 잘한 아들은 상주고 이려고 싶겠는가? 생각해보라. 그런 하나님은 무자비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참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공의가 손상되고, 이러면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라. 공의 때문에 내가 아들을 못 찾아가겠는가? 내 공의를 세우자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도 아니다. 자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죽도록 놔두겠는가? 그러면 무자비한 아버지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기독교에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놓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더니 무자비 하지 않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서 좋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무엇 때문에 처형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기 위해서 처형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도 그래서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람한 놈은 죽인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여겼다. 성전을 헐라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놈은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놈을 놔두면 내가 하나님께 불의하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을 본받은 사람들이 많다. 중세 때 그랬다. 요즘에는 국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국법이 허락하면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큰일 난다.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놓으면 너는 당연히 지옥 갈 놈이 아니냐? 성경을 보라. 성경에 너 같은 놈은 멸망할 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놈은 죽이라고 했는데 하고 갈등하고 있겠는가? 그것을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 같으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의붓아버지거나 그렇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갈등할 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방되었다. 해방되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해방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해방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면 해방이 되고, 잘 못 알면 갈등이 된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아주 고상한 것 같은데, 고상한 것이 아니고 빌어먹을 짓이고 망할 짓이다. 그런 인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 아들을 놓고 공의와 사랑을 저울질 하고 있는 아버지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 남의 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졌다. 그분이 오시면 훨씬 쉽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기가 쉽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고, 모든 것이 더 쉬운 것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을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4:12)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라고 한다.

이것을 육신에 적용하면 병 고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다. 좌우간 그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병이 고쳐지면 좋기는 좋은데 그 말만은 아니다.

그분의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그분의 죽으심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해방시키게 되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그것이 진짜 그분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죽을 때 봐야 안다고 한다.

우리가 다 나가서 하나님을 선전할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 선전을 잘못해 놓으면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놓는다. 안 그럴 사람이 성경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를 죽인다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사람을 처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다. 다 자기 이름으로 라고 하지 않았다. 다 자기가 하면서 내가 너를 용납 못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용납 못한다. 예수님이 너를 용납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처형한다고 말했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죽인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인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심한 이야기를 오늘 한 것 같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란다.

그분의 죽으심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 우주 안에 질서를 새로 바꾸는 일이다. 굳게 닫힌 동산의 문이 확 열려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요구했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조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게 조건을 묻지 않았다. 그것을 미리 알고 앞서 가셨다. 내가 앞서 가리라. 내가 앞서 가리라고 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셨다. 모세에게도 내가 앞서 가겠다고 하셨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삼상12:16)고 하셨다. 이것이 모두 복음이다.

잘못하면 저주를 복음이라고 전파하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말 안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잘못 전해 놓으면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전하게 된다. 하나님만 무자비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또한 무자비해 진다.

종교인들이 무자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산주의자들만 무자비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이념에 싸인 사람들이 더 무자비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조금 거칠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부드럽게 소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61:56)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너는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으니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다. 알고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당연히 지옥불도 있고 멸망도 있고 많다.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다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얼음덩어리에 넣겠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는 유황불에 집어넣고, 누구는 얼음덩어리 속에 넣겠는가? 내가 직접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나는 그런 것을 교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그러지 말라고 반대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걱정하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호적 파서 나가라는 말도 하고,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고 말을 부모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의 본심은 아니다. 그 말을 아이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진짜로 집을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 아이들이 더

러 그러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말을 잘못해서 평생 상처가 된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봐서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할 말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아버지가 17살에 자기를 낳았다. 대가족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고 큰아버지가 큰 어머니가 있는 층층시하에 살고 있는 대가족이다. 옛날에는 17살 20살 먹어서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을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건방지다고 동네 사람들이 욕하던 그런 분위기였다.

옛날에는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자식인체를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손자와 조부하고는 겸상을 했어도 부모 자식 간에도 겸상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사랑스러웠을 것인데도 표현을 하지 못했다. 한번은 아이가 밭에 따라왔는데, ‘아빠 아빠’ 하니까 ‘이 새끼, 나보고 아빠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해버렸다. 아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큰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래서 아이는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어렸을 때는 넘어갔는데 사춘기가 되어서 생각이 깊어지니까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저 사람이 군대 갔을 때, 큰아버지와 엄마가 관계가 되어서 낳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사춘기에 얼마나 갈들이 되었겠는가? 이것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발작하게 되었다.

사실은 아버지 말이 진심이 아닌데 어린 아기에게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 후에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얼마나 귀여웠겠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빠’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고 너무 과하게 말 해버리니까 아이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다.

그런 말은 아무한테나 할 말이 아닌 것이다. 법적을 딱 갈라놓고 ‘너는 죽어. 너는 살아.’ 이렇게 할 말이 아닌 것이다. 할 만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다. 너는 지옥 불에 가라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구에 오니까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예정론’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장로교가 센 곳으로 생각했다. ‘멸망 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다. 칼빈주의가 멸망 받으라고 한 말이나는 것이다. 멸망 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하니 그렇게 풀어진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뭣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야지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먹이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는 것이다. 사실은 모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멸망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는 것이다.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요8:5)하는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다. 그런 여자를 가만히 두면 악이 퍼지게 된다. 당연히 악을 제거하려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8:5)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함정이 될 줄 알았다.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무법자가 될 것이고, 죽여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더니 자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함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했다. 왜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 다른 말을 했는가? 그것은 여자를 살리려고 한 말이다.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문자에 매이면 안 된다.

사역자들이 제일 주의할 것이 이런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하는 이 말이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말이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을 할 때마다 ‘Bible say~ Bible say~’라고 하면서 강조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눌렀던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사역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을 그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뭣 하러 사역자가 있겠는가? 사역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다. 살리도록 해석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고 써있더라도 살리도록 해석해야 한다. 살려놓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도 그런 것은 괜찮다.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내가 지옥가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살 사람을 죽여 놓고 자기는 천당 가면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역은 살리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약장에 약이 많다. 그 약은 독약도 있고 순한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다. 그런데 그냥 갖다 먹으면 되지 왜 의사가 필요한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이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가? 그 약을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도 성경에는 수없는 말이 많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배합해서 쓰는 가다. 독약도 배합만 잘하면 좋은 약이 된다. 부자(附子)같은 것은 잘못 쓰면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잘 쓰면 사람이 힘이 좋아진다. 그리고 초오라는 약은 무지하게 독한 약이다. 먹으면 바로 죽는 약이지만 잘 배합하면 중풍이 뚫어진다. 막힌 혈관이 뚫어진다.

사람을 살리려고 신학을 하지 사람을 죽이려면 뭐 하러 신학을 하는가? 할 일이 없어 백정 노릇하려고 신학을 하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죽이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내 마음대로 하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이런 것은 무자비한 짓이다.

성경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주었지 사람을 죽이라고 준 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도 걸려서 못 읽겠으면 그냥 두고 넘어간다. 일부러 풀려고 하지 않는다. 언젠가 풀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굳이 저주가 되는 말을 파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성경을 사람에게 준 것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살라고 준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준 것인데, 왜 내가 불행한 것을 발견해서 가지고 가겠는가? 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6:63) 살리는 것이 장땡이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전에 있던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교리사를 보면 대제니 소제니 하는 말이 있다.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다. ‘결혼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하고 질문했다.

그때 나도 총각이어서 자신이 없었다. 내가 ‘그것은 윤리학 교수에게 물어보라.’

고 대답을 미루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례가 있다. 두 남녀가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장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까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데 만일에 젊은 사람들이 어찌다가 손을 놓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때 교역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놓고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권고해서 빨리 결혼하도록 주선해야 할 것인가? 결혼을 주선해서 둘이 떳떳하게 교회생활을 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음번에 윤리학교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느냐고 물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직접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 말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교수가 그때 묘하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을 가면서 우리교단의 원로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로목사님이 노발대발해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여 내가 잘못했다고 4년을 고생한 사람이다. 잘못했으면 고쳐주면 된다.

그 목사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던 분이였다.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분이 노해서 4년을 싸웠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세상사람 누가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한다. 둘이 사귀다가 어찌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 재판소에 내놓고 재판을 하겠는가?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는 재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나에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냥 이론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 좌우된 일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교단 형편이 그러했다.

그때 내가 전쟁을 해보았다. 교회에서 싸움을 4년 동안 했다. 기도하는 그런 것을 다 안다. 쌍방이 다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기도했다. 나는 거기서 모든 허구를 알게 되었다. 나도 처음에는 나는 정당하다고 시작했는데, 뒤로 가니까 갈수록 미워졌다.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기 시작했다. 부흥회 같은 곳에 가서 회개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때 4년을 피가 마르는 고생을 했다. 그래도 나는 그때 말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둘을 잡아다가 교회 재판소에 내놓고 재판했으면 뭐가 되었겠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때 상황은 참 무서웠다. 사람들이 돌변해서 패가 돌로 갈라져서 조그마한 교단이 서로 싸웠다. 총회에 가서 투표까지 했다. 작은 교단이라서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큰 교단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해보았다. 그때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뭇인지도 알게 되고 경험했다.

그때 투표를 해서 내가 한 표를 이겼다. 그때 그렇게라도 이기지 못했으면 나는 떨어져나갔을 것이다. 우리 교단은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 표라도 이겼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기들도 정말 애를 먹었다. 이상한 놈을 만나서 그분은 자기 평생에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었다. 내가 딱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하겠는가? 못한다. 그때 교회 집사들이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은 잘못된 것 없다고 했고, 교단에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못 내 보낸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4년을 버텼다. 그때 만일 집사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떨어져나가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때 나는 아무데도 올 데도 갈 데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교단도 작고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잘 됐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다. 살 길을 찾아야 했었다.

나는 교사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도 내가 받지 않았다. 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사자격증을 언제 써먹겠다고 받겠나 했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가 되었다. 그때는 자격증만 있으면 학교 교사하기가 쉬웠었다. 나는 그때 아무 것도 없었다. 돈도 한 푼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그때 교단을 나오니까 딱 받을 곳이 생겼다. 묘하게 그곳으로 넣기 위해서 나를 꼬집어내었다.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C.C.C.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는 그 후로 정신없이 살았다. 한참 뒤로 정신이 나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알게 되었다. 미국에 가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뼈쩍 말라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다. 나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제일 존경했다. 그런데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분과 둘이 붙어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교리주의는 사람을 잡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총회에서 내가 한 표를 이겼는데도 안 된다. 소위 교단 원로라는 분들이 너도나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총회장이 개판이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내보내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 만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좀 참으세요.’ 하고 내가 해야 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해야 한다. 아무리 성경에 써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해야 한다. 사실은 자기가 죽이고 싶으니까 죽이면서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장작더미 위에 생사람을 쇠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죽였다. 얼마나 잔인한가. 사람을 그냥 불고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교리에 잘못 잡히면, 심지어 성경에 잘못 잡히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나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이 성경을 주었겠는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인 바는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계속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을 보았다. 해같이 얼굴이 밝은 사람도 보았다. 90이 넘는 할머니인데 머릿속에 천상의 노래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1904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였다. 교회를 갔다 오려면 80리 길을 시골에서 평양까지 갔다 오고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자기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면 믿겠느냐는 하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석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렇게 될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못한다. 최*선목사라는 분이 있다. 생활이 훌륭하여 제자가 되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온다고 한다.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다고 한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잠을 안 자는데 제자들이 잘 수도 없고, 선생님이 식사를 안 하는데 제자가 먹을 수도 없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분 자신은 너무 충만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다. 같이 못하니까 밑에 사람이 다 떨어져나가고 없다. 나는 그때 그분에게서 나는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것을 배웠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사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3일 동안 사경회를 한다고 모셨는데, 3일 동안 똑같은 말만했다. ‘설탕이 왜 달아? 다니까 달지! 소금이 왜 짜? 짜니까 짜지!’ 이 이야기를 3일 동안 계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정석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건축을 방해하고 있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교회건축이 안 된다. 너무 똑똑해서 결혼할 사람이 없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받으면 누구와도 연합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소위 신끼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잘못 하면 그런 인간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경계한다. 하나님이 주었다면 할 수 없지만 교회 건축이 안 된다.

감사합니다.